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

-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Solidity of Urban Households*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박사후 과정 정운영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황덕순

Dept. of Consumer and Textile Sciences Ohio State University

Post Doc : Jeong, Woon Young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Hwang, Duck S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variables o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solidity.

The major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bt management behavior and risk management behavior reveled a higher score than any other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The main determinants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were financial communication and financial attitudes. The more positive financial attitudes and the more financial communication were, the better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followed. The set of households characteristics variables accounted for 2% of the variance i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But the addition of financial related variables resulted in an R2 change of 33%. Second, the financial solidity by median was 4.10. It means that usable net asset is four

* 본 연구는 박사논문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times higher than the total amount of risk. Household head's age, financial attitudes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wer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financial solidity.

주제어(Key Words): 재무건정성(financial solidity), 재무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 서론

1997년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금리인상, 급여삭감, 실업자 증가, 자산디플레이 등으로 인하여 가계경제도 어려움을 겪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소득의 감소, 부채의 증가, 신용불량자 증가¹⁾ 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의 경제생활 안정과 건전화는 개별 가계에서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획득할 수 없고 생활수준과 가족목표의 하향조정 뿐만 아니라 생계에 곤란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생활 안정과 건전화를 위해서는 그들의 재정생활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생활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기초를 단단히 형성해야 할 것이다.

가계의 재무상태는 이러한 가계경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가계의 재무상태에 대한 파악은 가계의 재정적 만족감이나 안전감과 같은 주관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과 객관적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기업부도사태에 이은 개인파산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해 볼 때(한국신용평가, 1998) 가계의 재정적 위기는 각 개별 가계에서 대응하여야 하므로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무건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계 경제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무건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위치와 문제를 규명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규명하는 데는 문제해결을 위한 가계관리 단계가 요구된다. 재무관리행동은 이러한 가계관리의 측면으로,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함으로써 가계는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상황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재무목

표를 실현하고 재무상태를 건전화게 이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보다는 실천중심의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여 개인 소비자나 가계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무관리행동을 하도록(O'Neill & Brennan, 1997)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계 재무관리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각 재무관리 하위영역에 대한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만족도, 안전감, 재무목표 달성도와 같은 가계 복지상태를 주관적으로 측정한 연구들(배희선 & 최현자, 1996; 홍향숙, 1997; 홍향숙 & 이종혜, 1999; 김효정, 2000; Hira, 1987; Titus 외 2인, 1989; Parrotta & Johnson, 1998)이 대부분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두가지 이상의 재정변수가 조합된 재무비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측정(DeVaney, 1993, 1994; Garman 외, 1994; 양정선: 1996, 최윤지, 1998)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정방법을 제시하여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측정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재무비율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개별 가계들에서 이를 응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서구식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서구와는 경제상황이 크게 다른 우리나라 가계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

1) 통계청 자료(2000, 2/4분기)에 따르면 1997년 IMF이전 월평균소득이 228만원에서 1998년 213만원 1999년 222만원으로 감소와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IMF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의 감소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월평균 부채는 IMF이전 21만원에서 1999년에는 약 26만원으로 증가함으로써 IMF관리체제이후 소득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신용평가의 개인신용정보 분석결과(1998)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신용불량자는 IMF이후 6개월 사이에 12.82%, 27.3%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 있다.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적 산출변수와의 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들(Hira, 1987; Parrotta & Johnson, 1998; 김순미, 1993; 배희선 & 최현자, 1996; 임정빈 외 2인, 1998; 김효정, 1999; 김효정, 2000)에서 정적인 관계로 입증되어 재무관리행동을 잘할수록 재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이 재무건전성과 같은 객관적인 산출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 측면인 재무건전성 지표를 개발하고 가계특성변수와 재무관련변수들이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재무건전성 정도를 비교하여 다가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재무상담가나 교육담당자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며, 정부 및 관련기관의 경제적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재무관리행동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임정빈 등(1995, 1998)과 이선형과 이연숙(1997)은 재정문제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차원으로 정의하였고 이기춘 등(1998)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홍향숙(1999)은 재무관리행동을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가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하고 증식시켜 가계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소득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행동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들은 재무관리행동을 재무관리의 영역과 과정에 따라 구분하거나 영역과 과정을 통합하여 본 것이다.

재무관리행동의 측정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측정되나 대부분 재무관리행동의 정의에 따라 영역과 과정으로 측정되었다. 재무관리체계의 과정은 행동원리의 시간적 흐름을 의미하는 것(김순미, 1993)으로 대부분 계획 및 수행의 과정으로 측정되고 재무관리가 구매, 소비, 생산, 공급 등의 경제적 기능과 금융수단의 화폐기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움직이므로 그 기능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측정되었다.

Scannell(1990)은 농촌가계를 중심으로 소비계획, 가계부 기록, 예산과 실제비용과의 비교, 순자산 평가 등의 계획, 수행, 평가의 과정으로 재무관리 행동을 측정하였고 Mugenda 등(1990)은 금전관리행동을 재무관리행동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행과 평가의 과정으로 측정하였다. 홍향숙(1997)은 가계의 재무관리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와 같은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계획과 수행으로 측정하였고 이선형 등(1997)은 목표설정, 소비표준설정, 예산책정, 소득과 비용의 평가에 대한 계획과 소비자 구매, 가계부 기록, 저축 및 투자, 소비자권리행사, 소비습관 검토 및 평가, 유산분배계획과 유산 분배의 수행으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임정빈 외, 1998; 이상협, 1999; 김효정, 1999; 계선자 등, 1999; 계선자, 2000)에서 재무관리행동을 계획과 수행의 차원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재무관리행동을 체계의 과정요소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과 수행 또는 평가의 차원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은 가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재무영역에 대한 행동들이 측정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인 재무관리행동의 측면을 다루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비하여 재무관리행동을 실제적인 관리행동으로서 파악하고 영역별 행동을 측정된 연구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ira(1987)는 재무관리행동을 위험과 신용관리행동의 특정한 영역만을 측정하였으나 그 이후 Titus 등(1989)은 좀 더 영역을 구체화 시켜서 재무관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 즉 예산 수립, 가계부기록, 신용사용, 저축, 위기관리 행동을 측정하였고 Porter 등(1993)은 현금, 신용, 자본축적, 위험, 은퇴와 유산, 일반적 재무관리 행동을, Parrotta 등(1998)은 현금, 신용, 위험, 은퇴와 유산, 자본축적, 일반적 재무관리의 6가지 영역에 대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을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배희선 등(1996)은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으로 측정하였고 홍향숙 등(1999)은 개인, 가계, 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소득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로 나누어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이제까지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측정은 계획과 수행의 차원과 재무관리 영역별로 실제적인 행동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되고 있어 우리실정에 맞는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요구도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개인 및 가계는 전 생애에 걸쳐서 소득과 부의 극대화, 효율적 소비의 실천, 재무생활만족의 발견, 재무적 안전감의 달성, 노후대비를 위한 부의 축적과 같은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다(Garman & Fogue, 1994).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전 생애에 걸친 재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의 관리, 소득과 자산의 보호, 자산의 증대, 노후설계와 상속계획행동으로 보고 이러한 각 단계에 해당하는 행동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수입과 지출관리로서 현금 및 지출, 차용, 세금관리행동을 소득과 자산의 보호의 측면에서 위험관리행동, 자산의 증대를

위하여 저축 및 투자관리행동, 노후설계와 상속을 위해서 은퇴 및 유산계획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현금 및 지출관리행동, 차용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저축 및 투자관리행동, 은퇴 및 유산계획행동으로 측정하였다.

2. 재무건전성

1) 가계의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개념 및 측정방법

재무건전성은 가계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가계의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개념 및 측정방법을 살펴봄으로서 재무건전성의 개념과 측정방법의 특성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안전도(Economic Security)는 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으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주어진 생활 수준 또는 소비 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계의 능력(김경자, 1993)으로 개념화하고 총자산과 유동자산의 시가를 월평균 소비지출액과 빈곤선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종혜(1993)는 같은 개념으로 경제적 안정도(Economic Stability)를 측정하였는데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현금화하여 중신연금의 형태로 투자할 경우 매년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와 그해의 소비수준의 최소요구량이라 할 수 있는 가계원수를 고려한 연간 최저생계비와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는 순자산을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으로 간주한 것이나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는 수준만 고려하였다는 단점이 제시되었고(황덕순, 1995) 소득의 중단 외에 가계의 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위험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경제적 안전도는 가계에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수준의 경제적 생활 수준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정도, 능력으로서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해결책의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의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불안정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볼 때 여러 가지 환경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순자산 저량과 총순자산량 등의 산술적 크기를 기초로 가계의 소득, 저축, 투자, 자산, 부채 등의 절대액을 측정함으로써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방법과 재무비율을 근거로 상대적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측정하였다. 최근에는 재무비율에 의해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재무비율이 측정의 정밀성과 비교가능성을 용의하게 한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그 종류와 준거기준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Griffith, 1985; Prather, 1990; Lytton, Garman, Porter, 1991; DeVaney, 1993, 1994; Garman 외, 1994; 양정선, 1996; 최윤지, 1998). 이 중 양정선(1996)의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상태를 측정하였는데 금융자산/월지출액, 연간총지출/연간총소득, 금융자산/총부채, 실물자산/총부채, 총자산/총부채, 총부채/순자산, 금융자산/순자산, 총부채/연간총소득, 주관적최저생계비/월소득, 주관적최저생계비/월지출과 같은 10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재무상태를 측정하였다. 이는 산술적 저량에 기초한 자산의 측정보다는 세부적인 여러 자산의 항목간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관리의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였고 재무상태의 건강도를 판별해 주는 기준으로서 타당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재무상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윤지(1998)는 농촌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고자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소득대소비비율로 유동자산/월지출액,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유동자산/순자산은 유동성비율로서 측정하였고 유동자산/부채액, 총부채/순자산, 실물자산/총부채는 부채부담비율로 투자자산/순자산,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은 자본축적비율로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재무비율은 매우 다양하여 실제 가계에서 이를 응용하여 재무상태를 분석하기에는 복잡하고 그 기준이 외국에 실정에 맞게 선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가계에 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2) 재무건전성의 개념 및 측정방법

재무건전성지표는 현행 증권회사의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신속하게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의 시가액과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액 및 보유자산 시세의 불리한 변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손실액을 이용해 산출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으로 나눈 것으로 대신경제연구소(1998)에서는 이러한 산출식을 이용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개인신용지표로 개발하고 이는 가계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개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재무건전성은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가계가 경제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 이전의 수준으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으로, 위험에 대비하여 가계의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사전적 의미의 지표이다. 이러한 재무건전성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가계가 신속하게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의 시가액인 가용순자산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고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액 및 보유자산의 불리한 변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액 즉 급박한 지출 또는 예기치 않은 지출이나, 보증선 사람의 갑작스런 부도로 그 책임을 떠안았을 때 그것을 충분히 막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가용순자산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측정된다(대신경제연구소, 1998). 그러나 이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표로 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목표와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념으로 수정되고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무건전성을 이루는 주요한 개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타당성이 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사용보다는 자산과 같은 소유의 개념을 중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의 주요개념으로 자산을 포함시킬 수 있다. 오늘날 부채의 효용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계속적인 빚의 악순환을 가져오면서 가계 파산을 초래할 지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과 부채는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다. 또한 가게가 직면하는 위험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환경위험과 전세보증금과 같은 거래상대방 위험으로 점점 커짐으로서 재무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 위험액의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표는 자산, 부채, 위험액의 개념으로서 개발되었다. <그림 1>은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가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본 연구자가 도식화 한 것이다.

하위영역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가용순자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현금화곤란 자산
- (2) 총위험 = 시장위험 + 거래상대방위험 + 기초위험 + 신용집중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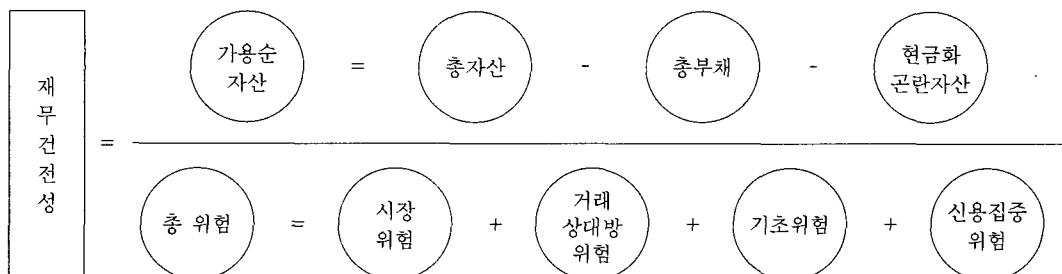
자산은 현금, 금융기관 예치금, 주식과 채권(시가), 귀금속(시세), 전세보증금, 빌려준 돈, 토지, 건물의 시가, 자동차(중고차 시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합이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직장대출금, 사채,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의 채무와 임대보증금의 총액이다. 현금화곤란 자산액은 즉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이다. 시장위험액은 유동자산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손실금액 또는 현금화시 손해율을 말한다. 즉 채권과 귀금속과 같이 수시로 가격이 변하는 자산인 경우 시세의 일정비율을, 보험과 같이 중도해약하면 납입원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는 납입금의 일정 부분을 위험액으로 본다. 거래상대방 위

험액은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액과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위험액을 더한 금액으로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으로 대신 물어주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한 금액이다. 최근 빚 보증문제와 전세금 문제가 사회문제가 됨으로서 이 부문에 대한 금액의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위험액은 가장의 실업이나 불의의 지출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기본적인 손실금액이다. 신용집중위험액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빌려주었거나 빚 보증을 썼을 경우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동일인에게 가용순자산의 금액이 일정량 이상을 초과하여 제공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집중위험이라 한다.

3.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가게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재정안정도, 경제적 복지감과 같은 주관적인 재무상태와의 관계를 측정한 연구들로 재무관리행동과 객관적인 재무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몇몇 연구에 불과하다. 특히 재무건전성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로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측정된 개념들과 재무관리행동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Titus 등(1989)은 인적, 물적자원과 재무관리행동이 순자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Scannell(1990)은 재무관리행동이 빚/자산비율과 복



<그림 1> 재무건전성 측정에 대한 도식화

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재무상태에 대한 주관적 측정과 객관적 측정을 모두 하나의 모델에 제시함으로써 재무관리행동과 그러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재무관리행동이라는 변수에 의해 재무상태의 객관적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양정선과 김순미(1992)는 체계론에 근거하여 가계관리와 저축율, 총저축액, 월평균저축액, 증권액, 부동산액과 같은 객관적 측정기제인 재무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합리적인 가계관리가 바람직한 재무상태를 지향하도록 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재무상태를 절대액에 기초한 단순한 측정만을 사용하였다는데 제한점을 두고 재무상태의 상대적 비율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무건전성은 이러한 가계의 객관적 재무상태로 재무관리행동은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4.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계특성변수

가장의 연령은 평생소득의 증감을 결정하는 요소(Nickell, Rice & Tucker, 1976, 황덕순, 1995 재인용)로서 재무 상태의 변화에 관련이 있는 변수로 중요하다. 이는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과 유의한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anes & Morris, 1989; Titus 외 : 1989) 연령이 적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 Carr, 1992; Davis & Weber, 1990; Godwin, 1994; Godwin 외, 1986; Mungenda 외, 1990; Titus 외, 1989).

교육년수, 특히 주부의 교육년수는 가정관리자로서 재무관리 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서 주부의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주관적인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김숙이, 1988) 일반적인 가계관리에 영향을 주는 것(김연정 외, 1991)으로 나타났으나

한편 Heck(1983)와 Hira(1987)의 연구결과에서는 교육년수와 재정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재무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가계의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족자원으로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재정만족도 혹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에 정적인 영향(Davis 외, 1981; Danes 외, 1989; Mungenda 외, 1990; 김순미, 1993; 고보선, 이영호, 1995)을 미칠 뿐 아니라 재무관리행동에 직접, 간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가계의 소득은 가계를 운영하기 위한 생활비와 저축액, 부채상환의 여러 형태로 배분되므로 대표적인 물적자원 변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연구들에서는 소득이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혔고(Godwin, 1994; Godwin 외, 1986; Hira 외, 1992; Mungenda 외, 1990)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Godwin & Koonce, 1992; Titus 외, 1989)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2) 재무관련변수

재무지식은 재무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변인으로 Titus 등(1989)의 연구에 의하면 금전관리자의 재무지식은 계획과 수행행동에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ungenda 등(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재무관리지식은 금전관리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감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Hira 외, 1992; Godwin & Carroll, 1986; Godwin, 1994; Godwin 외, 1986; Hira 외, 1992)도 재무지식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재무의사소통은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가족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고 관리행동의 효율성과 가정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임정빈 외, 1995) 이는 많은 연구들(Mungenda 외, 1990; 김재경, 문숙재, 1992; 김정훈, 1995, 임정빈 외, 1995; 김효정, 1999)에서 재무의사소통이 재무관리행동과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태도란 좋고 싫음에 대한 어떤 정도를 평가함에 의해서 표현되는 심리학적 경향(Eagly 외, 1993)으로 재무 태도는 재무관리행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동의의 정도로 표현되는 심리학적 경향으로 간주한다(Parrotta 외, 1998). Parrotta 등(1998)은 재무 태도와 재무관리행동이 재정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는데 재무 태도는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변수였으나 재정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odwin(1994)은 재무 태도를 독립변수로 보고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재정적 태도의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재무 태도가 현금관리의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관리행동은 어떠한가? 둘째, 재무관련변수는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재무건전성의 경향은 어떠한가? 넷째, 재무관련변수, 재무관리행동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해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표집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계로 부부 중 재무관리를 주로 하는 사람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집은 광주광역시의 하위지역인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유층을 나눈 다음 각 유층에서 가장의 연령과 직업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는 6명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가 직접 답한 후 회수하거나 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의 개별 면접을 통해 회수하였다.

2차에 걸친 예비조사 후 질문지를 작성하여 본 조사는 2000년 7월1일 -24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600부중 수집된 자료는 580부였으나 연구의 내용상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부실기재한 문항이 많고 성의 없이 답한 것으로 보여지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51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PC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산술통계를 하였고 재무 의사소통, 재무 태도, 재무관리행동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공자들에게 내용타당도를 실시하고, Cronbach의 계수를 측정하였다. 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재무지식, 재무의사소통, 재무 태도, 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부부가계로서 <표 2>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표 2>에 제시된 조사대상가계의 특성을 보면 가구주 평균연령은 42.3세로 1999년 전국평균 42.2세와 광주광역시 가구주 평균 연령 42.6세(도시가계연보, 1999)와 비슷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가장의 연령과 주부 연령 모두 40대가 가장 많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30대, 40대, 50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의 교육년수는 대졸이상이 57.1%로 가장 많고 주부의 교육년수는 고졸이 43.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장의 직업은 사무기술직이 53.4%로 가장 많고 생산판매직, 전문경영직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취업률은 53.0%로 그 중 사무기술직이 27.8%로 가장 많았다. 가계의 경제적 특성으로 월평균소득은 259만원으로 1996년 한국 도시가계의 월평균소득 215만원(통계청, 1997)과 1999년 월평균소득

<표 1> 변수의 정의 측정방법

변 수	측 정 방 법
재무건전성	<p>* 재무건전성은 가계가 경제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빚 없이 그 이전의 수준으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으로 가용순자산에서 총 위험액을 나눈 개념이다. [재무건전성=(가용순자산 총위험)]</p> <p>(1) 가용순자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현금화곤란자산 (2) 총위험 = 시장위험 + 거래상대방위험 + 기초위험 + 신용집중위험</p> <p>① 자산: 유동자산 + 고정자산 ② 부채: 금융기관대출금, 직장대출금, 보증금, 할부잔금, 사채 등의 총액 ③ 현금화곤란자산액: 자산, 토지, 건물 시가 50%, 중고차시세의 20%. ④ 시장위험액: 주식의 10%, 채권의 5%, 채권형수익증권의 10%, 주식형수익증권의 20%, 저축성 보험의 30%, 보장성보험의 50%, 귀금속의 10% ⑤ 거래상대방 위험액: 보증잔액의 50%, 근저당설정액 50%, 채무액50%, 전세보증금 10% ⑥ 기초위험: 1년 경상지출액의 60% <근거:대신경제연구소에서 제한한 기초위험은 1년 경상지출의 50%를 선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경제적 안정도를 측정한(김민정, 1995) 연구를 살펴 볼 때, 우리나라 가계의 경제적 위기시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7-8개월 정도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는 60%로 선정하였음>를 계산한 값이다. ⑦ 신용집중위험: 동일인에게 가용순자산의 20%를 초과하여 제공했을 경우 가용순자산의 20%에 해당하는 값</p> <p>** 현금화 곤란자산액, 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위험액에 대한 일정비율은 대신경제연구소(1998)에서 개인신용지표와 동일한 값으로 계산한 것이다.</p>
재무관리행동	<p>* 전 생애에 걸친 재무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현금 및 지출관리행동, 차용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저축 및 투자관리행동, 은퇴 및 유산계획행동을 말한다. * 20문항<Parotta 등(1998), 홍향숙(1999) 등의 연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 * 5점척도(항상그렇다--전혀그렇지 않다), 20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 신뢰도계수 .83</p>
가계특성변수 가장연령 주부교육년수 월평균 소득	<p>* 만 나이를 말한다. * 교육년수(년) * 봉급/임금, 이자, 배당금, 집세(임대료), 기타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p>
재무관련변수 재무지식 재무의사소통 재무태도	<p>* 재무지식, 재무의사소통, 재무태도는 현금 및 지출관리행동, 차용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저축 및 투자관리행동, 은퇴 및 유산계획 분야에 대한 관련지식(재무지식), 부부간 의사소통 빈도와 일반적인 재무의사소통의 효율성(재무의사소통),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것에 대한 호의적/비호의적 태도(재무태도)로 정의된다. ** 재무지식- 총 16개의 문항<김혜선, 배미경(1998), 이기춘 등(1998)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문항구성> 맞는 답: 1점, 틀린 답과 모른다:0 ** 재무의사소통- 총 11 문항<임정빈 등(1995) Mugenda 등(1990)의 연구를 기초로 영역별로 문항구성>, 5점척도, 신뢰도는 .89 ** 재무태도- 총 13문항 <Godwin 등(1992), Parotta 등(1998)의 연구를 기초로수정, 보완>, 5점척도, 신뢰도는 .78</p>

220만원(통계청, 1999)과 비교할 때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으며 101만원-200만원의 소득집단이 41.3%로 가장 많고 201만원-300만원 집단, 301만원 이상의 집단, 100만원 이하의 집단의 순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주거소유형태를 보면 71.7%가 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전국 주택조사의 자가율의 74.8%보다 약간 적고 광주광역시 69.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2〉 조사대상가계의 특성

(N=515)

변 수	범 주	빈도(%)	변 수	범 주	빈도(%)
가장 연령	30세 이하	61(11.8)	주부 연령	30세 이하	116(22.5)
	40세 이하	186(36.2)		40세 이하	194(37.7)
	50세 이하	154(29.9)		50세 이하	134(26.0)
	51세 이상	114(22.1)		51세 이상	71(13.8)
가장 교육수준	중졸이하	28(5.4)	주부 교육수준	중졸이하	54(10.5)
	고졸	136(26.4)		고졸	223(43.3)
	대졸	294(57.1)		대졸	207(40.2)
	대학원이상	57(11.1)		대학원이상	31(6.0)
가장 직업	무직	40(7.8)	주부	무직·전업주부	273(53.0)
	생산판매직	106(20.6)		생산판매직	71(13.8)
	사무기술직	275(53.4)		사무기술직	143(27.8)
	전문경영직	94(18.2)		전문경영직	28(5.4)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40(7.8)	주거소유 형태	자가	369(71.7)
	200만원 이하	213(41.4)		임대	146(28.3)
	300만원 이하	167(32.4)			
	301만원 이상	95(18.4)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 연령	42.3세	10.03	주부연령	38.6세	9.45
월평균 소득	259만원	202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재무관리행동의 경향과 영향요인

1) 재무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

재무관리행동은 각 하위영역인 현금 및 지출관리, 세금관리, 차용관리, 위험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 은퇴 및 유산계획의 측면으로 나누고 각 하위영역별 평균과 각 문항별 평균치로서 그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3〉 하위영역별 재무관리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515)

하위영역	평균(5점척도로 환산)	표준편차
현금·지출관리	3.54	0.72
세금관리	3.51	0.72
차용관리	3.79	0.69
위험관리	3.62	0.79
저축 및 투자관리	3.33	0.74
은퇴 및 유산계획	3.25	0.99
전체재무관리행동	3.52	0.53

〈표 3〉은 재무관리행동의 하위영역별 행동의 평균치를 제시한 것으로 하위영역별로 볼 때 모든 영역에서 중간점수인 3점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런 편이다'의 4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순위별로 살펴보면 차용관리를 가장 잘하고 그 다음으로 위험관리, 현금 및 지출관리, 저축 및 투자관리, 은퇴 및 유산계획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차용관리와 위험관리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홍향숙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IMF관리체제 이후 변화된 경제적 환경속에서 최소한 빚을 지지 않고 빚을 잘 갚아나가는 차용관리행동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행동이 가장 잘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의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여 빚 없이 사는 것은 더 이상 가계가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 최소한의 관리행동으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위험관리행동은 가

계 재무관리의 예비적 관리행동으로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저축 및 투자관리와 은퇴 및 유산계획과 같은 관리행동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저축 및 투자관리는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과 자산을 증식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포함된 행동으로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은퇴 및 유산계획 특히 유산계획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가계특성변수와 재무관련변수가 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변수와 재무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고 이들 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진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e$$

- Y : 재무관리행동, a : 상수항, X 1 : 가장연령,
- X 2 : 주부교육년수, X 3 : 월평균소득
- X 4 : 재무지식, X 5 : 재무의사소통,
- X 6 : 재무태도, e : 오차항

회귀분석에 앞서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보기

위해서 잔차에 대한 정규성확률 산점도를 한 결과 정규성을 검증하였고 Durban-Waston test에 의한 D_W계수가 각각 2.02, 2.10으로 잔차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50이상 높게 나타나지 않아 독립변수간의 독립성이 만족되었다.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가계특성변수만을 분석한 결과 가장의 연령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가장의 연령이 적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계특성변수와 재무관련변수를 모두 투입변수로 보고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재무의사소통과 재무태도로 나타났다. 재무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할수록, 재무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재무관리행동의 33%를 설명해 주고 있어서 두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Mungenda 등 (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재무의사소통이 빈번하고 효율적일수록 각 가계의 특성에 따라 그들만의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실행력을 증가하게

<표 4>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가계특성, 재무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N=515)

독립변인	가계특성변수의 영향력		가계특성+재무관련 변수의 영향력	
	b	β	b	β
가장연령	-.143	-.134**	-.025	-.023
주부교육년수	-.179	-.045	-.158	-.040
월평균소득	.004	.079	.001	.025
재무지식			.128	.035
재무의사소통			.485	.356***
재무태도			.591	.310***
상수		77.996		25.405
R ²		.022		.330
F값		3.849**		41.751***
DW		2.02		2.10

* p<.05 ** p<.01 *** p<.001

함으로서 재무관리행동을 잘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Godwin, 1994; Godwin 외, 1986; Parrotta 외, 1998)에서는 재무지식이 많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도 재무지식의 효과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재무의사소통과 재무태도가 재무관리행동에 더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몇몇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Godwin 등(1986)은 재무지식과 재무태도, 재무관리행동의 관계에서 태도가 지식보다 관리행동을 잘 예측하고 있음을 밝혔고 Parrotta 등(1998)은 재무지식이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여졌으나 재무태도를 같은 회귀식에 포함시킴으로서 재무지식의 효과가 사라짐으로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였다.

2. 재무건전성의 경향과 영향요인

1) 재무건전성의 일반적 경향

재무건전성은 앞의 이론적 배경과 조사도구의 측정방법에서 보았듯이 총자산과 총부채, 현금화 곤란자산을 뺀 가용순자산과 시장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기초위험, 신용집중위험을 모두 합한 총 위험액을 나눈 것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균과 중앙값

이 5.30, 4.10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의 1의 의미는 가용순자산과 총위험이 같다는 한계기준을 의미한다. 즉 위험상황에 처할 때 빚을 지지않고 위험상황을 해결 할 수는 있으나 앞으로 그 이전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재무상태를 의미하므로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재무건전성 중앙값은 4.10으로 가용순자산이 총 위험액의 약 4배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가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위험액의 4배 정도의 가용순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총 위험액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별 위험액을 살펴보면 1년 생활비의 60%를 계산한 기초위험액이 가장 많고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집중위험, 시장위험액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빚 보증과 전세금 문제로 개별 가계가 처해있는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시장위험액이 적은 것은 최대한 시장위험이 적은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가계특성변수, 재무관련변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설정하고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e$$

Y : 재무건전성, a : 상수항, X 1: 가장연령,

X 2 : 주부교육년수, X 3 : 월평균소득

X 4 : 재무지식, X 5 : 재무의사소통,

X 6 : 재무태도, X 7 : 재무관리행동, e : 오차항

재무건전성에 대한 가계특성변수와 재무관련변수, 재무관리행동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진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이상치 값을 갖는 가계를 제외하고 총 497가계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보기위해서 잔차

<표 5> 재무건전성 구성요소의 일반적 경향 (단위: 천원)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중앙값
총자산	146,800	155,350	100,000
총부채	12,330	24,130	0
현금화곤란자산	42,420	56,260	31,000
가용순자산	92,040	110,510	58,800
시장위험	2,760	13,810	450
거래상대방 위험	6,560	16,530	1,500
기초위험	10,790	5,410	14,400
신용집중위험	6,070	27,670	0
총위험	26,380	46,030	14,700
재무건전성	5.30	5.31	4.10

에 대한 정규성확률 산점도를 한 결과 정규성을 검증하였고 Durban-Waston test에 의한 D_W계수가 각각 1.93으로 잔차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독립변수간의 독립성이 만족되었다.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장의 연령, 재무태도, 재무관리행동으로 가장의 연령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재무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일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 할수록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재무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위험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재무건전성에 대한 가계특성변수와 재무관련변수, 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기 위하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가계특성변수만을 회귀식에 넣었을 때 재무건전성에 대한 설명력이 7%로 나타났고 재무관련변수를 회귀식에 포함하였을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설명력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을 설명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정변수인 재무관리행

동을 추가함으로써 재무건전성에 대한 설명력을 약 12%로 높여주었다. 이는 재무관리행동이 실천적인 도구로서 직접적으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재무관리행동이 객관적인 산출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객관적인 재무상태의 향상에 기여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재무관리행동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차용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IMF관리체제 이후 개별가계는 가계의 경제적 성장보다는 가계를 유지하고 위험에 대한 예비적 측면을 강조하는 행동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무의사소통과 재무태도는 재무관리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이는 재무영역별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재무관리행동에 중요함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재무관리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들은 효율적

<표 6> 재무건전성에 대한 가계특성, 재무관련변수, 재무관리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N=497)

독립변인	가계특성변수 영향력		가계특성+재무관련 변수 영향력		가계특성/재무관련변수+ 재무관리행동변수 영향력	
	b	β	b	β	b	β
가장연령	.103	.259***	.107	.268***	.109	.273***
주부교육년수	.046	.032	.044	.031	.057	.040
월평균소득	.001	.046	.001	.040	.001	.033
재무지식			.075	.057	.065	.050
재무의사소통			.024	.049	-.020	-.040
재무태도			-.023	-.034	-.079	-.116*
재무관리행동					.093	.256***
상수						
R ²		-.444		-1.300		-3.616
F값		.066		.071		.117
DW		11.623***		6.247***		9.064***
		1.93		1.94		1.93

* p<.05 ** p<.01 *** p<.001

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무 관리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고무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의 연령이 적은 가계일수록 재무의사소통을 많이하고 재무태도가 호의적이므로 가장연령이 많은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상담과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단순한 재무비율의 측정이 아닌 가계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위험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가용순자산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 위험액과 같은 다차원적인 개념이 포함된 지표로 개발되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가계의 현재 재무상태는 총 위험액의 약4배의 가용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개인소비자와 가계는 현재 그들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재무상태를 예측함으로써 자산과 부채, 위험액을 조절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가장의 연령과 재무관리행동은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가장의 연령이 많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고 재무관리행동을 잘할수록 재무건전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초기에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의 자녀교육 및 주택마련 등과 같은 미래의 중요한 재정적 목표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혼초기에서부터 재무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재무목표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재무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초기에서부터 가족생활주기가 변화면서 점검해야 할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이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주관적인 만족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재무상태인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무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계의 객관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무건전성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에 상응하는 위험액과 사회경제상황에 따라 가계가 가지는 환경적 위험액들을 고려하여

측정된 지표로서 가계 스스로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변화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대처하도록 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가계가 광주광역시에 한정되어 있어서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재무건전성의 지표를 측정하는 것이 자산과 부채 등의 매우 민감한 질문이어서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을 하였다는 확신이 어렵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개념의 정의와 측정방법이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 연구에서는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이러한 재무상태를 측정하고자 할 때 접근이 가능하고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위험액의 하위영역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수정, 개발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출변수로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만을 하였으나 미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측정과 그들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건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 측정을 같이 함으로서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계선자, 유을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50.
- 계선자(2000).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95-111.
- 고보선, 이영호(1995).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 김경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07-118.
-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 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체계론의 적용가

- 능성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11(2), 195-207.
- 김숙이(1988). 도시주부의 경제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정, 김순미(1991). 체계론에 근거한 주관적 재정 안정도에 대한 인과적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9(4), 151-165.
- 김재경, 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53-74.
- 김정훈(1995). 부부사이의 재정의사소통과 재정만족도: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에 따라. 소비자학 연구, 6(2), 1-14.
- 김혜선, 배미경(1998) 가계재무관리, 서울:지학사
-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 대신경제연구소(1998). 개인신용지표. 금융연구실.
- 배희선, 최현자(1996). 가정 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와 재무관리 행동과 재정만족도 - 화폐관리 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 준비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 양정선, 김순미(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1), 237-255.
- _____ (1996).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춘 외 5인(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서울: 박현사.
- 이상엽(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141-153.
- 이선형, 이연숙(1997). 노인단독 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 생활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31-43.
-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_____ (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최윤지(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중년기와 노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신용평가(1998). 개인신용정보
-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_____ (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전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이종혜(1999). 개인·가계·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2-24.
-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1999). 한국 주요 경제지표.
- 통계청(1999). 도시가계연보.
- Danes, S. M., E. W. Morris. (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0(3), 205-215.
- Davis, E. P., R. A. Carr. (1992).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3-16.
- _____, J. A. Weber. (1990). Patterns and obstacles to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41-51.
- Devaney, S. (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Eagly, A., S. Chaiken(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Tronto: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 Garman, E. T., R. E., Fogue. (1994). *Personal Financial,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G. Langreher (ED.). The proceeding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23-131.
- Godwin, D.D. (1994). Antecedents and consequence of newlywed's cash flow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161-190.
- _____, D. D. Carroll (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 of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_____, J. C. Koonce (1992). Cash flow management of low-income newlyw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17-42.
- Heck, R. Z. (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 Hira, T. K. (1987). Satisfaction with money management: Practices among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Home Economics, Summer*, 19-22.
- _____. (1997). Financial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differences by ag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21, 271-290.
- _____, Fanslow, A. M., & P. M. Titus. (1989). Changes in financial status influencing level of satisfaction in household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07-121.
- _____, & R. Vogelsang. (1992).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preparation for financial emergenci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43-62.
- Lytton, R. H., Garman, E. T & H. M. Porter.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
- Mugenda, O. M., Hira, T. K. & A. M. Fanslow.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4-360.
- O'Neill, B., P. Q. Brennan. (1997). Financial planning educa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Summer*, 32-36.
- Parrotta, J. L., P. J. Johnson. (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 Porter, N. M., E. T. Garman. (1993).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35-164.
- Prather, C. G. (1990). The ratio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70.
- Scannell, E. (1990). Dairy farm families'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133-146.
- Titus, P. M., Fanslow, A. M., & T. K. Hira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